

“처치곤란 추석 선물 교환하세요”

“처치곤란 추석 선물, 상품권이나 필요한 물건으로 교환하세요”

많은 선물이 오가는 추석시즌, 받은 선물 중에는 같은 종류의 선물이 중복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품목이 있기 마련이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선물세트는 백화점과 마트 등 유통업체의 교환제도를 이용하면 실속을 챙길 수 있다.

14일 광주지역 대형유통업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중복된 추석선물을 상품권으로 교환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포장을 개봉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물세트는 해당 업체의 상품권과 다른 물품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광주 시내계백화점은 9월 말까지

백화점·대형마트, 이달말까지 바뀌줘

구입 14일 이내 개봉·하자 없어야 가능

가공식품과 공산품 등 신선식품을 제외한 모든 추석선물세트에 고객이 원할 경우 판매처만 확인되면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도 신선식품을 제외한 다른 선물세트에 대해 역시 상품권으로 교환해주고 있다. 구입한 지 14일 이내의 상품만 가능하며 영수증이 없어도 배송일지를 통해 구입 여부만 확인되면 된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변질 우려가 없는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전

표 확인을 통해 같은 가격대의 다른 선물세트나 상품권으로 바꾸주고 있다.

백화점에서 판매한 신선식품 선물세트는 대부분 배송 전 수취 및 교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기 때문에 연휴가 끝난 시점에서 교환은 제외됐다.

대형마트업체도 같은 교환제도를 실시중이다.

이마트는 유일하게 신선식품을 포함, 판매가 확인된 선물세트에 대해

같은 금액의 상품권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반품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일부 신선식품을 포함한 모든 선물세트를 매장에서 교환 및 환불해 주고 있으며 롯데마트도 자사 매장 제품으로 확인되면 18일까지 신선식품을 제외한 선물세트는 다른 물건으로 교환해주거나 같은 가격대의 상품권으로 바꾸준다.

이마트 상무점 관계자는 “선물세트 교환제도는 중복된 선물을 받은 고객 등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가능한 한 고객들의 반품 요구를 수용할 계획”이라며 “반품된 신선식품은 폐기하고, 가공식품이나 공산품은 포장을 해체한 후 날개로 재판매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박지현의 살림 레슨

■ 감물 염색

올해 추석이 빨랐던 탓에 마당의 단감 하나 거두지 못했다. 대신 팽감으로 염색 해 둔 감물 천이 먼저 익어가고 있다. 친구 어머니집이 손수 배를 한 보상삼배 한 필과 가지귀 천 한 필이 전부인데 그것으로 가을 커튼도 만들고 쿠션도 만들 생각이야.

우리 동네에 시집과 출산한 캄보디아 새댁에게 아기가 이불 하나 선물하고 싶고, 내년에 낳을 후배에게도 이불 한 채 선물하자면 천을 더 사야 할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감 익는 것보다 감물 익는 것이 더 즐거운 이맘때다. 흔히 사람들은 천연 염색이라 하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외로 쉽고 간단하다.

감물 염색에 대해 소개하자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물들일 천을 구하는 일이다. 면이나 삼베 등 천연 천이어야 한다. 처서 지난 지금은 모시나 삼베 물들이기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가을밤 찬 기운에 천이 푹푹 끊어지기 때문이다. 면 종류를 골라 깨끗이 빨아 풀기를 제거해 둔다. 그라야 물이 잘 든다. 천이 준비됐다면 감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딱딱 감을 고추 가는 기계에 넣어 즙만 빼서 담아 둔다. 대추 믹서로 갈다간 단단한 감 씨와 끈적거리는 액 때문에 기계 고장 내기 일수다. 최근에 광고하는 즙만 짜낸다는 기계에도 갈아 봤는데 적은 양이라면 그렇게도 가능했다. 대신 조금씩 갈아 내고 짜개기는 그때그때 빼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만든 감물을 넓은 그릇에 담아 두고 천을 잘 펴서 조금씩 담그면 되는데 후 두둑을 만들고 싶은 분이라면 천을 접어서 넣어도 괜찮고 긴 천을 길게 손으

면 등 천연천에 감 갈아 즙에 담그고 햇볕 아래 아침 저녁 물 뿌려주면 끝



로 훑어 담아도 좋다. 어느 한 부분 겹게로 고정을 시키기도 하고 이파리 몇 장 감물로 천에 붙여뒀다. 그 부분만 물들이 않아 자연스런 무늬가 된다. 이제 나머지 작업은 햇빛과 물이 만든다. 일주일 정도 물이 잘 드는 풀밭에 퍼놓고 천이 바짝 마른다고 싶으면 물을 뿌려 주는데 아침엔 아침이슬이 대신하니 낮 12시와 오후 4시 두 차례만 적셔주면 된다. 발색의 원리는 물과 햇빛이 반응하면서 색을 내는 것인데 물들이는 시간이 많을수록 그만큼 발색이 빠르다. 그렇다고 천이 마를 새 없이 주다가는 곰팡이가 피기 일수니 지나친 욕심은 금물이다. 물론 몇 가지 주의 사항은 더 있다. 감물을 적서 널 때 천을 접어 빨랫줄에 걸면 안 된다는 사실. 접은 자국이 그대로 무늬로 남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래쪽으로 감물이 물리면서 아래쪽만 진하게 염색되기 십상이다. 또 찬물에 증성세제로 빨아야 색상이 변하지 않으며 처음 몇 번은 그늘에 널어야 색이 바뀌지 않는다.

감물들이 천들을 바느질하는 동생이 조각조각 이어 줬다. 너무 한 그루가 푹푹 내 방안에 들어 와 있다. 당분간 나는 ‘고실거리는’ 잠을 즐기게 됐다. 햇빛과 바람과 초목이 뻗어 이불 덕분엔.

<담양역의 열 두 달 살림> 저자 jazzchants@hanmail.net

지역 백화점 추석 매출 효자는 ‘한우세트’

상품권 등 인기...전년보다 10% 이상 신장

지난 추석 유통업체는 올 초부터 가격하락세를 보였던 한우 등 축산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두자릿 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가장 잘 나간’ 선물은 한우세트였고, 과일 값 상승 등 일부 선물세트 단가 상승으로 상품권 매출도 두자릿 수 이상 늘어났다. 14일 광주지역 유통업체에 따르면 한우세트 매출 신장률은 지난해 추

대비 최고 27%까지 늘어나며 올 추석 선물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지난해 대비 10~20% 가격이 하락한 정육제품 덕분에 축산품 매출이 8% 증가했으며 가공품 7%, 선어류 3% 등의 매출신장을 기록했다. 청과류는 신장률 0%로 판매단가 인상을 반영하면 마이너스 신장률을 나타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해 대비 12% 신장된 추석선물세트 매출을 기록했으며 정육제품은 27% 매출이 상승했다. 반면 수산물 -8.6%, 과일 등 농산물은 -9.4%로 고물가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한우세트가 인기였다.

전체적으로 12%의 매출 신장을 기록한 가운데 출하 물량확대와 고객 선호가 더해지면서 한우 판매는 지난해보다 20.8%나 증가하며 매출상

을 이끌었다. 이와 함께 상품권 판매도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과 롯데백화점 광주점,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각각 15%, 12.6%, 17%의 상품권 매출 신장률을 나타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정육을 제외한 신선식품의 단가가 오르다 보니 중소기업 등에서 선물용으로 상품권을 많이 선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는 지난해보다 홈플러스 9.6%,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5.7%, 4.7%의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순희 ‘캔 막걸리’ 나왔다

보해 파스퇴르 막걸리 ‘순희’가 출시 6개월 만에 600만병 이상 팔리며 막걸리 시장에 지속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캔 제품이 출시된다.

보해가 지난 3월 출시한 막걸리 ‘순희’는 6개월이 지난 14일 현재 판매량이 50만상자(750ml·12병)로 600만병 이상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계기로 보해에서는 자회사인 보해B&F를 통해 캔 막걸리를 출시해 제품의 성공적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순희’는 국내산 쌀 80%(수입소맥 20%)와 노령산맥 지하 253m 천연암반수로 빚고 파스퇴르 공법(저온살균법)을 적용해 막걸리의 영양과 신선함이 오랫동안 유지된다. 특히 막

걸리를 만들 때 생기는 술 지게미를 미세하게 분쇄한 후 걸러 맛이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 6%에 용량은 350ml며, 가격은 850원.

보해 관계자는 “순희 막걸리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캔 제품까지 더해져 판매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뚝뚝한 청소로봇 탱고 입니다”

삼성전자는 14일 광주사 업장에서 생산하는 인공 지능 로봇 기능을 갖춘 로봇 청소기 ‘스마트 탱고’를 출시했다. 두께가 79mm에 불과해 소파나 침대 밑까지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고, 12개의 고성능 장애물 센서를 통해 장애물을 더 잘 감지해 피해갈 수 있다. 가격은 59~100만원 선이다. <삼성전자 제공>

경영상태가 나쁜 일부 저축은행의 퇴출이 임박했다. 이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여부는 다음 주중 판 가를날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14일 “조만간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경영위)를 열 계획이다”며 “이번 주는 시간상 너무 촉박하고, 마지막 주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다른 관계자도 “저축은행의 공식일정 등을 감안하면 경영위를 마지막 주에 열기는 어렵다”며 다만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주말에 개최할지, 그냥 주중에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축銀 퇴출 다음주 판가름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분산 바람직

경영평가위원회(경영위)를 열 계획이다. 이번 주는 시간상 너무 촉박하고, 마지막 주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의 다른 관계자도 “저축은행의 공식일정 등을 감안하면 경영위를 마지막 주에 열기는 어렵다”며 다만 “(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주말에 개최할지, 그냥 주중에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영위는 부실 우려가 큰 저축은행이 자구노력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기구다. 경영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 당국은 곧바로 임시 금융

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지난 7월 경영진단이 시작되면서 대다수 저축은행이 이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놓고 당국과 상당한 수준까지 협의한 상태에 알려졌다. 이달 초 당국의 경영진단이 마무리 되자 상당수 은행을 비롯한 몇몇 저축은행은 당국의 퇴출 대상 발표에 앞서 경영공시를 통해 2010 회계연도(2010년 하반기~2011년 상반기) 실적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을 발표하고 있다. 미리 실적을 공시한 저축은행들은 BIS 비율이 지도기준(5%)을 웃도는 곳이 많으며, BIS 비율이 5%를 밑돌거나 자 본잠식 상태더라도 추가 자구책을 통해 정상화가 가능한 곳이다. <연남뉴스

지역 추석 소포 사상최대

230만1703통...21.7% 늘어

광주·전남 지역의 추석 소포 물량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올 추석 우편물 특별 소포기간(8월 29일~9월 11일)에 접수·배달된 소포가 모두 230만 1703통에 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188만 4026통보다 무려 21.7%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 6일에는 평소 물량의 4배에 달하는 29만9500통이 접수·배달 됐다. 단일 품목별로는 영광 굴비 17만여통, 완도 전복 1만여통 17만 여통, 나주배 14만여통 등이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방우정청은 추석을 앞두고 총 2400여명과 운송차량 350여대를 투입해 우편물 소포를 도왔다. 전남지방우정청 관계자는 “전남 22개 시군 40여개 업체의 상품을 선정, 지마켓, 옥션 등에서 운영한 ‘우체국남도특산mall’도 큰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ji@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GRAND OPEN 1주년 기념

웨딩·객실 대감동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할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 * 대형예식장 뷔페식비 보다 저렴하거나 동일합니다.
- *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참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 * 하객 400인 이상 보충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 *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예약문의 362-0011, 600-9999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 비염은 조기 치료를 매우 중요하며,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재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90204-중-473호